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7

주 제:	“거저 주어라.”	“연중 제 15 주일 ”	2009년 7월 12일
복음 묵상:	[마르 6,7-13]	[아모 7,12-15]	[에페 1,3-14]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여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거저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인데, 사회적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교의 원칙은 환영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환영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환영을 하면 그 집에 그냥 머무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그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직접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주님을 찬미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전교의 원칙, 공동체 구성, 주님께 신뢰 그리고 환영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연 마태오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성숙 리씨자매님 지난 주 고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분들에 감사드립니다.
-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 6/18-7/6 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모친 방문을 위하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기길 기도합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 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예정.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사탕: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7월의 영명축일을 맞으신 가족들

권미숙(안나), 김지만(토마스), 신계완(대건안드레아),
전란이(마리아 막달레나), 최일해(다니엘), 최효원(도미니카).



7월에 영명축일을 맞으신 성가대 가족들 축하드립니다.

+ 복음 [마르 6,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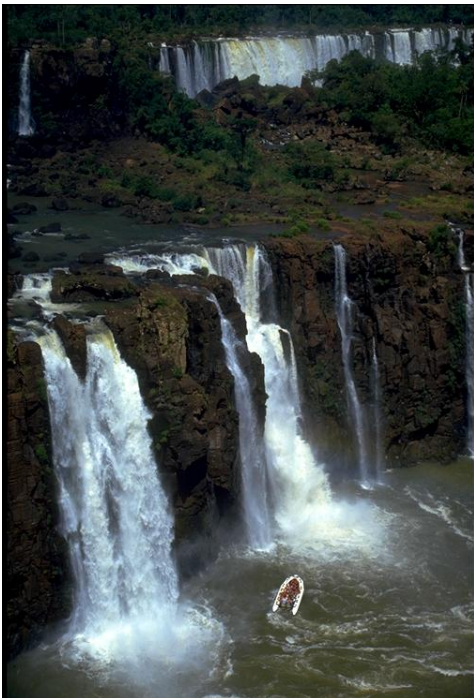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 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 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



1분 명상

♡ "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흐른다" ♡ (류영국)



물은 합치려는 의지로 흐른다,
돌부리에서, 가랑잎 틈새에서 스며 나온 물은
흐르다가 바윗등이 줄기를 갈라놓으면
옆으로 비껴서 만나고
독을 쌓아 막으면 틈새로 새어 나와
다시 만난다.
그렇게 만나고 합쳐서 강이 되어 흐르고
강물은 다시 합쳐 바다에서 하나로 된다,

물소리는 서로가 그리워서 울부짖는 외침이다,
그리움 끝에 만난 물줄기인지라
포구에 다 와서는
웃음 짓는 만월을 띄우고 흐른다,

물의 여정은 하나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나뭇가지는 자라면서 갈라지지만
물은 갈수록 합쳐진다,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이다,